대한간호학회지 제36권 제1호, 2006년 2월
J Korean Acad Nurs Vol.36 No.1, 37-44, February,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 상 숙[1] · 김 경 미[2]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사회적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뜻하지 않게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달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아개념, 특히 자아존중감의 발달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 중요성 등 자신의 가치성을 평가,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생의 전 단계에서 생활의 행복과 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eo, 2003).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행복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 하나로 자기 자신을 가치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각 개인이 자기 내면에 지니게 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Kim, 2001; Winters, Myers, & Proud, 2002). 또한 자아존중감은 외적인 성공이나 실패보다는 내면적인 정신적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어 미래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공적인 적응과 연관된 보호적인 대처자원으로 작용하게 된다(Kim, 2002).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자아개념은 일반적으로 15세부터 20세 사이에 현저하게 발달하는데, 청소년기에는 특히 자아개념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Jang,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환경의 주요 인물인 어머니, 친구, 교사 등에 대한 지각과 상호작용을 통해서(Kim & Kim, 1998; Rosenberg, 1979) 발달해 나가는 과정 중 그들의 인정과 수용은 자아존중감과 긍지를 갖게 하는 반면 그들의 거부와 멸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크나큰 손상을 가져오게 한다(Kim, 2001).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자신을 과장 또는 부정하지 않으며 독립적·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솔선성이 강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친절하고 호의적이다(Jang, 2003; Kang, 1994). 그러나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함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주위의 강화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라서 자신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례하게 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무례하게 보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응력이 낮다(Edwards, 1996; Jang, 2003; Oh, 1998).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정신건강, 건강상태, 약물남용, 범죄자살, 사회관계문제 등과 같은 비행과 관련이 있으며(Jang & Song, 2004; Lee, 2003; Kang, 2003), 자기거부적인 행동이 자살행동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 Lee, 2000; Wigfield, Eccles, Iver, Reuman & Midgley, 1991; Winters et al.,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기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가

주요어 :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지지, 신체상, 적응
1)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2) 서울봉화중학교
투고일: 2005년 7월 25일 심사완료일: 2006년 1월 13일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Cheohn, 2001; Jang & Song, 2004, 1999; Kim & Kim, 2003), 신체상(Jang, 2002; Lennon Rudd, Solan & Kim, 1998; Park, 2002), 사회적지지(Kim, 2002; Kim & Kim, 1998; Oh, 1998), 문제행동(Kim, 2002, Roh, 2002), 우울(Gould et al., 2003; Lee, 2002; Soe, 2003) 등과의 상관성 연구와 대상자의 친구와의 친밀도, 부모와의 대화정도 등과 같은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Choi, & Kim, 2003; Kim & Kim, 2003)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어느 하나의 요인과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다양한 환경요인 즉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Choi, & Kim, 2003; Jang, 2003; Koh, Lee, Na, Hwang, & Park, 2004)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여러 요인들 간의 상관성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성연구로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상관성이 있는 요인으로 검증된 개인적인 심리적·신체적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을 기초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함으로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신체상, 사회적지지, 문제행동 및 우울 등의 점수정도와 관련성을 파악한다.
-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6개교의 학생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각 학년마다 한 학급씩을 임의표출 하였다. 그 중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자료 23부와 통계분석 과정에서 절대값 3보다 큰 이상점(outlier)이 발견된 5부의 설문자료를 제거한 뒤 중학생 572명, 고등학생 583명(남학생 622명, 여학생 533명), 총 1155명의 설문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조사방법은 예비조사와 본 연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 1차 내용타당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 독립변수인 학교생활적응, 신체상, 사회적지지, 문제행동, 그리고 우울 측정 도구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들이다. 그러나 도구들의 문항수가 너무 많아 대상자에게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으므로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독립변수인 학교생활적응, 신체상, 사회적지지, 문제행동, 우울을 측정할 수 있는 6개 도구 129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문항수가 너무 많아 대상자에게 집중력을 감소시켜 정확한 자료를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다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5명으로 구성된 위원을 통해 평가지수(Content validity index)가 75%이상인 108문항을 선정하였다.

● 2차 구성타당도 검사

선정된 문항을 축소하기 위하여 6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각 학년 당 한 학급에서 15-18명씩의 학생 총 9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때 사용된 연구도구들은 요인분석으로 문항을 선정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설명력을 고려하여 문항을 선정한 후 신뢰도 검정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12문항, 학교생활적응 11문항, 신체상 4문항, 사회적지지 9문항, 문제행동 4문항, 우울 4문항으로 최종 57문항이 선정되었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범위는 .76～.90으로 확인되었다.

● 본 연구

2003년 11월 6일 - 11월 말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에서 설문에 응한 각 학년 당 한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의 결과로 작성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

예비연구에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Coopersmith(1967)의 CSEI를 기초로 12문항(4점 척도)으로 수정한 도구로 자기존중(2문항), 타인과의 관계(3문항), 지도력과 인기(4문항), 자기주장영역(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범위는 12점 - 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Cronbach's α는 .76이었다.

● 학교생활적응 측정도구

You(1994)가 사용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지를 기초로 수정한 11문항(4점 척도)의 도구로 교사와의 관계(4문항), 교우와의 관계(4문항), 학교규칙영역(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범위는 11점 - 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Cronbach's α는 .79였다.

● 신체상 측정도구

Choi(1992)가 Mendelson과 White(1982)의 Body-Esteem을 기초로 수정한 4문항(4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 범위는 4점에서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Cronbach's α는 .77이었다.

●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Lee(2000)가 선행연구를 기초로 수정한 9문항(4점 척도)의 도구로 부모지지(3문항), 교사지지(3문항), 친구지지(3문항)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범위는 9점- 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Cronbach's α는 .90였다.

● 문제행동 측정도구

Achenbach와 Edelbrock(1978)가 개발한 도구를 참고로 Kim (2002)이 사용한 도구를 기초로 수정한 12문항(4점 척도)의 도구로 내적행동문제(7문항)와 외적행동문제(5문항)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범위는 12점 - 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Cronbach's α는 .80이었다.

● 우울 측정도구

미국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된 도구를 번역한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DES-D-K)를 참고로 Lee(2002)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기초로 수정한 9문항(4점 척도)의 도구로, 우울정서(2문항), 활동장애(4문항), 흥미상실(3문항)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범위는 9점-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연구도구의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구하였으며, 대상자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요인인 학교생활적응, 신체상, 사회적지지, 문제행동 그리고 우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서술통계로 구하였다.
- 자아존중감 관련요인들과 일반적 특성 중 가정화목도(1, 0)와 상담자(1, 0)를 가변수로 처리하여 자아존중감과 관련요인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잔차분석에서 절대값 3보다 큰 7개의 이상점(outlier)을 제거한 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중학생(49.5%)과 고등학생(50.5%)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고, 남학생(53.9%)이 여학생(46.1%)보다, 인문계(72.2%)가 실업계(27.8%)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출생순위는 첫째(45.3%)가 가장 많았으며, 성격특성은 긍정적인 편(78.1%)이라고 응답한 수가 많았으며,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함께 산다(89.4%)가 따로 산다(10.6%)보다 훨씬 많았으며, 가정의 화목도는 화목한 편(84.3%)이라고 대답한 수가 다수였다. 경제 상태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보통'(69.7%)이라고 응답했으며, 대화상대 유무는 답답할 때 대화할 상대가 있다(91.8%)라고 응답한 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요인들과의 상관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요인들 정도는 평균 2.65점이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정도를 보면 학교생활 적응은 평균 2.58점, 신체상 2.42점, 사회적지지는 2.89점, 문제행동은 1.99점, 우울은 2.1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 신체상, 사회적지지, 가정화목도, 대화상대와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r=.162~.516, p=.000)가 그리고 문제행동과 우울과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r=-.452~-.512, p=.000)가 있었다<Table 3>.

〈Table 1〉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155)

Characteristics	Remark	N	%
Type of School	Middle School	572	49.5
	High School	583	50.5
Classification of School	Academic	421	72.2
	Vocational	162	27.8
Sex	Male	622	53.9
	Female	533	46.1
Order of Birth	First	523	45.3
	Second	116	10.0
	Last	410	35.5
	Only Son / Daughter	106	9.2
Character	Positive	902	78.1
	Negative	33	21.9
Cohabitation with Parents	Cohabiting	1032	89.4
	Not cohabiting	123	10.6
Family Unity	Strong	974	84.3
	Weak	181	15.7
Economic Status	High	82	7.1
	Medium	805	69.7
	Low	268	23.2
Scores	High	184	15.9
	Upper-intermediate	415	35.9
	Lower-intermediate	398	34.5
	Low	158	13.7
Counselling Partner	Existent	106	91.8
	Non-existent	95	8.2

〈Table 2〉 Mean & standard deviation of study tool

Variable	Tool	Mean	SD
Dependent Variable	Self-Esteem	2.65	.41
Independent Variable	School Adjustment	2.58	.48
	Body-Image	2.42	.71
	Social Support	2.89	.55
	Problematic Behaviour	1.99	.45
	Depression	2.11	.57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 신체상, 사회적지지, 문제행동, 우울 변수와 일반적 특성 중 가정화목도(예, 아니오)와 상담자(유, 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r=-.005 ~.516) 상관계수가 0.8미만으로 나타나 예측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Table 3>.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예측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우울, 사회적지지,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신체상, 가정의 화목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4.7%였다<Table 4>.

이상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회귀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Durbin-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Body-Emage	Social Support	Problematic Behaviour	Depression	Counseling Partner
Self-Esteem	1						
School Adjustment	.462**	1					
Body-Image	.331**	.225**					
Social Support	.516**	.531**	.142**	1			
Problematic Behaviour	-.452**	-.260*	-.201**	-.278**	1		
Depression	-.512**	-.283*	-.184**	-.339**	.468**	1	
Counseling Partner	.162**	.187**	.022	.231**	-.115**	-.162**	1
Family Unity(Yes, No)	.287**	.128**	.044	.228**	-.191**	-.231**	-.228**

** p<.001

〈Table 4〉 The factors affecting self-esteem and explanation

Variables	B	S.E	β	Adj R^2	t	F	P
Constant	2.152	.090			23.819		
Depression	-.184	.017	-.258	.283	-10.640*		
Social Support	.179	.019	.241	.413	9.529*		
Body-Image	.092	.012	.161	.486	7.536*	215.615	.000*
Problematic Behaviour	-.169	.022	-.187	.455	-7.852*		
School Adjustment	.144	.021	.169	.514	6.803*		
Family Unity	.135	.024	.121	.547	5.632*		

* p<.05

〈Table 5〉 Assumption of multiple regression

Variables	Tolerance	VIF	Condition Index	Durbin-Watson	Lineality	Normality	Hemosceda-sticity
Depression	.71	1.401	1.00	2.019	ok	ok	7 object remove
Social Support	.66	1.514	6.42				
Body Image	.921	1.085	8.19				
Problematic Behaviour	.73	1.342	9.13				
School Adjustment	.69	1.467	15.03				
Family Unity	.92	1.092	18.20				

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정한 결과통계량이 2.02로 검정통계량(1.78)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69-.92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는 1.09-1.51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상태지수에서 학교생활적응(15.03)과 가정의 화목도(18.20)가 10을 넘었지만 분산비율이 90%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었으므로 상태지수가 10이상이라 하여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음으로 영향력분석을 Cook's distance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155개 중 1.0이상인 개체는 없었다. 또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귀모형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65점(4점 척도)이었다. 이는 비교적 높은 정도로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도구를 활용해 측정한 Kim(2002)의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같은 도구를 활용해 측정한 선행연구 결과들(Cheon 2001; Choi & KIm, 2003)에 비해서도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았다.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아존중감 정도가 연구마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여러 가지 상황과 정서가 다른 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한 점과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구개발과 이를 활용한 비교・반복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평균 2.58점(4점척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연구한 다른 결과들(Jeong, 2000; Kim, 2002; Lee, 2000)과 그 정도가 비슷한 보통수준 이상이었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교생활적응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다(β=.169).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Cheon, 2001; Jang & Song, 2004; Jeong, 2000; Kim, 2000)와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집단은 긍정적인 집단에 비해 불안, 우울, 부정적 행동이 높았다는 Kim(1998)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교사와 친구들과의 부적응을 가장 크게 고민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Choi & Kim, 2003; Jeong, 2000),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가져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Garfensky와 Okma(1996)의 연구결과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이나 우울로 인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신체상 정도는 평균 2.42점(4점 척도)으로 보통수준 이상이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상에 대한 선행연구(Jang, 2002) 결과와도 그 정도가 유사하다. 또한 이처럼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신체상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β=.161). 이는 청소년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Jang, 2003; Lennon et al., 1998; Park, 2002)와 신체에 대한 만족, 불만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신체에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신체외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는 선행연구(Jang & Song, 2004; Seo, 2003; Lennon et al., 1998; Park, 2002; Jang, 2003)와도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Chaung(1998)의 연구에서 신체상의 일부인 비만도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보고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아상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대한 느낌과 수용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외모란 주관적인 평가에 달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하여 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정도는 평균 2.89점(4점 척도)으로 비

교적 높은 수준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에 대해 연구한 다른 선행연구 결과(Kim, 2002; Lee, 2000)들과 그 정도가 유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과 순 상관관계(Kim, 2002)가 있다는 보고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β=.241). 이는 부모, 교사, 그리고 친구의 지지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Kim, 1998; Kim, 2002, Oh, 1998; Winters et al., 2002)와 또래 친구(Jang, 2003; Jang, & Song; Kim & Kim, 1998)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적응, 자아존중감, 신체적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볼 때,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부모의 지나친 지지는 성인으로서의 준비과정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친구지지는 또래 집단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하여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 풍토 상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지도해야하는 교사들의 역할이 부족하여 교사와 청소년들의 관계가 더욱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학교에서 교사들이 최대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는 보통 수준 이하인 평균 1.99점(4점 척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Kim, 2002; Roh, 2002; Seo, 2003)들과 그 정도가 유사하였다. 그러나 Kim(2002)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 정도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에 비해 자아존중감 정도도 낮은 것으로 보아 대상 선정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은 여러 선행연구(Jang, 2002; Kim, 2002; Roh, 2002)에서 역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이 확인되었다(β=.187). 이러한 결과는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어 주위의 유혹에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비행이나 문제행동에 쉽게 동조하게 되는데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비행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Edwards, 1996)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의 청소년이 비행경향이 높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을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우울 정도는 평균 2.11점(4점 척도)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에 대해 연구한 Lee (2002)의 결과와 그 정도가 유사하였다. 반면 본 연구결과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우울 정도를 보고한 선행연구(Lee, 2002)도 있었다. 이처럼 우울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울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기는 하나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한 연구도구에 차이(Levenson & Glocheski, 1991)가 있고, 청소년이 몸담고 있는 학교나 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역상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Gould et al., 2003; Lee, 2002)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β=.258).

또한 대상자의 특성 중 화목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었다. 이는 선행연구(Chang, 2003; Kim, 2002; Kim & Kim, 1998; Oh, 1998; Winters et al., 2002)에서 부모와의 지지를 받는 청소년의 자존감이 높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부모로부터 감정 이입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받는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우울, 사회적지지, 신체상,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일반적 특성 중 가정의 화목도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6가지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54.7% 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β=.258)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β=.241)가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신체상, 사회적지지, 문제행동 그리고 우울 등과 같은 일부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검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간접적인 간호중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상담전략을 개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의 각 학년 당 한 학급의 학생을 임의로 표출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예비 연구를 통해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해 2003년 7월 9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한 예비연구에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총 6개 영역 5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1.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65점이었고, 관련요인으로 사회적지지 정도가 2.89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행동은 1.99점으로 그 정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 신체상, 사회적지지, 가정화목도, 대화상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우울, 사회적지지, 신체상,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일반적 특성인 가정화목도 였으며, 이들 6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54.7%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검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간접적인 간호중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관련요인 간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개발과 본 연구에서 규명된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더 찾아내기 위한 반복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Chaung, S. K. (1998). *Weight control practices, body Iiage, self-esteem and depression accroding to weight perception of adolescent girls.* A collection of learned papers of Semyung Univ.

Cheon, P. M. (2001).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adjustment of comprehensive high-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 of Korea, Chonnam.

Choi, J. M., & Kim M. R. (2003). The study of adolescents' friendships general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and self-esteem. *Korean J Youth studies, 10*(3), 373-394.

Choi, J. S. (1992).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dolescents' body, image physical attractiveness, the distortion of body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 of Korea, Busan.

Edward, W. J. (1996). A measurement of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a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sample: What are the implications? *Adoles, 31*(124), 973-989.

Garfensky, N., & Okma, S. (1996). Addiction-risk and aggressive/criminal behaviour in adolescence : Influence of family, school and peers. *J of Adoles, 19,* 503-512.

Gould, M. S., Greenberg, T., Velting, D. M., &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 of Am Acad Child and Adoes Psychia, 42*(4), 386-405.

Jang, H. S. (2003). *Psychology of adolescence,* Seoul, Jinhak Publishing Co., Ltd.

Jang, S. C., & Song, M. H. (2004).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Korean J Youth Studies, 11*(3), 115-133.

Jeong, Y. J. (2000). *Related variables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 of Korea, Seoul.

Kang, S. K. (2003). Analysis of influence factor on the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 of adolescents' attitude. *Korean J Youth Studies, 10*(3), 155-180.

Kim, H. H., & Kim K. Y. (1998). The effect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adolescent' self-esteem. *J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6*(2), 47-60.

Kim, J. H. (2001). *Rooms educational programs in a small income urban class concentrated reg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 of Korea, Seoul.

Kim, S. J. (2002).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of middle-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 of Korea..

Koh, S. J., Lee, E. H., Na, Y. J., Hwang, J. S., & Park, S. H. (2004). The effect of Personal, familial, education, internet on adolescent's self-esteem according to the age and gender. *J of Korean Home Manag Asso, 22*(6), 13-26.

Lee, E. S. (2002).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 of Korea, Seoul.

Lee, K. N. (2004). Path model for adolescents' internet-related delinquencies and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Home Economic Assoc, 42*(5), 1127-1143.

Lee, M. R. (2000).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to influence on the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aegu Univ of Korea.

Lee, S. (2003). A study of relationship on suicidal risk, self-esteem and Ta Ego function of high school girl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2*(2), 155-163.

Lennon, S. J., & Rudd, N., Sloan, B., &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 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 17*(4).

Levenson, J., & Glocheski, S. (1991).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end-stage renal disease. *Psychosomatics 32*(4), 382-389.

Oh, K. J. (1998). *The effects about self-esteem and social aspect by oneself growth program of estranged juveni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 of Korea, Seohl.

Park, K. A. (2002). *A Descriptive collection to grasp juvenile self-esteem and face to face between their close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 of Korea, Seoul.

Roh, H. S. (2002). *Study on relation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their problemat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 of Korea.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Seo, Y. K. (2003).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 of Korea, Seoul.

Wigfield, A., Eccles, J. S., Iver, D. M., Reuman, D. A. & Midgley, C. (1991).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cych, 27*(4), 552-565.

Winters, N. C., Myers, K. and Proud, L. (2002). Ten-year review of rating scales Ⅲ: scale assessing suicidality, cognitive style and self-esteem, *J of the Ame Acad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1*(10), 1150-1181.

You, Y. H. (1994).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school adaptation, a feeling of uneasiness and school work accomplis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 of Korea, Seoul.

Influencing Factors on Self-Esteem in Adolescents

Han, Sang-Sook[1)] · Kim, Kyung-Mi[2)]

1)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2) Seoul Bong Hwa Middle School

Purpose: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self-esteem of adolescents. **Methods:**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1155 students at middle and high school in Seoul and Kyungkido, Korea. The Instrument tools utilized in this study were self-esteem, body-image, problematic behavior,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social support tool and thoroughly modified to verify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collected data have been analyzed using SPSS 11.0 program. The variable of family harmony and counseling partner was treated as a dummy variable. Seven outliers which were bigger than 3 in absolute value were found, so after taking them off,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for further analysis. **Result:**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self-esteem of adolescents were depression, social support, body-image, problematic behavior, school adjustment, and family harmony, which explained 54.7% of self-esteem. **Conclus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regression equation model of this research may serve as a self-esteem prediction factors in adolescents.

Key words : Self-esteem, Adjustment, Body-image, Social support, Depress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an, Sang-Sook*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 Korea
Tel: +82-02-961-9427 Fax: +82-2-961-9398 E-mail: sshan12@khu.ac.kr